

히라카타시 시장 후시미 다카시입니다.

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“긴급사태 선언”의 기간 연장이 결정되어 오사카부가 전 부민에게 요구하고 있는 불요불급의 외출이나 부외로의 이동 자숙의 요청이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 이것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5월 11일 까지로 하고 있었던 시 공공 시설의 휴관이나 이벤트 자숙의 조치를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시민의 여러분께는 계속해서 불편을 끼쳐드립니다만 이해하시도록 잘 부탁드립니다.

그리고 선언의 발출로 부터 2주일이 경과 했습니다만 오사카 부내의 신규 감염자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추이 하고 있습니다. 환자의 병원 수락 태세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중증 병상 사용율은 100%를 넘는 날이 계속되는 등 의료의 궁핍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. 중증 화 해도 간단 하게는 입원할 수 없어 코로나 이외의 병이나 다쳐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.

감염 급확대의 원인의 하나가 강한 감염력을 가지고있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. 가정 내에서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것 외에 중증화에 이르는 스피드도 빠릅니다. 또 지금까지 감염하기 어렵다고 생각 해져 온 젊은 세대에게도 감염하기 쉬운 것이 특징으로 특히 40 대 50 대로는 지금까지와 비교해 중증화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

증가하는 자택 요양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에서는 증상이 악화 되었을 때에 긴급

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오사카부와 제휴하여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의사회 나 병원 협회에도 주치의의 협력을 청하고 있습니다. 소방 팀에서는 구급 반송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먼저 오는 특별 팀을 편성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중입니다.

감염자의 급증은 모든 면에서 연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. 긴급사태 선언 해제의 열쇠가 되는 것은 감염자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입니다 .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합니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높은 의식을 가져 “이전되지 않는다” “이전하지 않는다” 를 위하여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31 일에 선언이 해제되도록 불요 불급의 외출 자속에 아무쪼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

레이와 3 년 5 월 12 일

히라카타시 시장 후시미 다카시